

“실리교류 전환점 마련”

강임준 군산시장, 캐나다 원저시 대표단과 경제 협력교류 방안 논의

강임준 군산시장이 자매도시인 캐나다 원저시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산업분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캐나다 원저시 대표단(시장: 드류 달킨스)과 새만금산업단지 주요 공장 시찰 및 기업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 원저시는 인구21만의 캐나다 대표 자동차공업도시로 지난 2005년 군산과 자매도시를 체결한 이래 공무원 파견,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년간 교류를 이어온 도시다. 이번 원저시장 단 군산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대한 교류가 재개된 것으로 단순 방문이 아닌 원저시 관공 기업 시찰과 대표단 면담이 병행되는 실리적 경제 교류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엔 시를 방문한 원저시 대표단은 지난 10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시장으로 당선된 드류 달킨스(Drew Dalbins) 시장을 대표로 원저시 소통·마케팅 정책실장과 '인베스트 원저시' 스티븐 맥켄지(Stephen Mckenzie) 시장, 조 곤칼브스(Joe Goncalves) 부시장으로 투자협약 등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관료대표사절단으로서 군산과 경제산업 교류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지역사회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원저시는 자동차 도시인 미국 디트로이트와 인접해 내연자동차 산업이 일찍이 발달된 도시로 최근에는 캐나다 최초 리튬이온 EV배터리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IC에너지솔루션 등 한국기업 투자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 중심지로 재도약 준비에 한창이다. 시도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차,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활발히 입주되고 있고, 이들 기업이 미주·유럽 등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이 필요한 상황으로 양도시간 경제협력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기업 수출 지원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023년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이로 내년을 기점으로 양국의 경제무역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선제적으로 양도시가 경제교류를 준비한다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4대종교 성지, 종교문화 콘텐츠 인기

익산시가 4대 종교 문화자원 체험이치유와 이타적 포용의 가치를 높이는 힐링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19일 원불교 중앙총부 교인 80여명이 4대종교 문화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코스는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출발하여 나비위 성당, 두동교회, 미륵사지 등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날 탐방은 원불교 교인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는 한 교인이 지난 9월부터 이달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다이로온 익산여행'을 진행하며 많은 타지역 분들이 원불교 명사의 시간과 총부를 경험한 점을 인상 깊게 여겨 다른 종교 문화체험을 경험해보자는 제안으로 마련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 관계자는 “4대 종교체험 여행인 '다이로온 익산여행'이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시가 종교문화 콘텐츠로 한차원 높은 힐링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원불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4대 성지를 돌아보고 지역 대표관광지인 보석박물관, 미륵사지, 아가페 정양원 등을 둘러보는 '다이로온 익산여행'을 내년 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다이로온 익산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 선정되어 9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20회를 진행 800여명이 참가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익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2년 연속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북 '최우수'

지역업체 수주를 향상·일자리 창출 높이 평가

익산시가 2년 연속 202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평가 전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수주와 하도급 현황, 건설자재, 현장방문 활동 실적, 우수사례 등 6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시는 지역업체·자재 및 기계장비 우선 사용 인력 우선 채용과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는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지역 건설사 공사 수주 확대를

위해 100억원 미만 사업은 지역 제한을 적용하고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계획 단계에 공구 또는 업종 분할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지역 제한이 어려운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해 지역업체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을 49%까지 끌어올렸다. 건설업 건전성 강화를 위해 건설업체 실태조사도 확대했다. 8천만원 이상 전문 및 종합공사 수주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단속을 확대해 폐업업체 폐지 회사를 배제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해 우수 업체에 수주 기회가 제공되

도록 노력해왔다. 이 밖에도 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장 책무 강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지역업체 하도급, 인력, 장비, 자재 등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지역건설업체가 향후 우수한 지역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군산시는 19일 개정분구(개정동, 사정동 일원) 인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총사업비 47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분구는 그동안 합류식 및 일부 분류식으로 관리돼왔지만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합류식 구간에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된다.

각 가정마다 개인 정화조가 폐쇄되어 분뇨수거의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우수는 하천이나 해역으로 방류해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때문에 연안 환경이 개선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 지난 2020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총사업비가 290억원이었지만, 실시설계 후 약 470억원의 사업비로 변경 추진 중이다. 개정된 동정, 총량마을 등 일부를 금번 사업구간에 포함해 환경부와 사전협의 완료했으며, 2023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이 추진되면 오수관로 신설 L=24.6km 등의 하수관거가 정비되며 배수설비 정비 703가구, 지역주민 약 5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의원 의원들 시정질문 잇따라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이종선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사항에 대해 예리한 질문들을 이어갔다. 이종선 의원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민경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체계 정립을 주문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강경호 의원은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체계적 지원을 통한 식품도시 건설 방안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이로온 카드 고도화 방안 등을 정책적 반영에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숙 의원은 (구)세무서 청사에 관한 집행부의 활용방안 모색을 촉구했고, 세입이자 수입과 인구정책 연계 방안 등에 의견을 제시했으며, 익산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제5산업단지를 오산·서부권에 건립할 것을 주문

했다. 박철원 의원은 아파트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주택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배산공원 자체매입 추진계획에 관해 질의했으며, 익산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도시환경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길영 의원은 영농폐기물 처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하는 등 익산시 관광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손진영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증원을 통한 운영 효율화, 대체수단으로써 바우처 택시 도입을 주문했으며, 생활권 의시설 중 대표음식점에 경사로 설치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유재구 의원은 사용종료된 금강매립장의 후속대책과 금강아직장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대책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및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간여행축제 청년 서포터즈 모집

군산시는 19일 미래세대가 공감하는 시간여행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서포터즈를 오는 2023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2일부터 시작해 30일간 진행되며 올해 10주년을 맞은 군산시간여행축제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제안이다.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청년의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축제에 연계해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SNS 활동 및 축제 관광 분야에 높은 관심을 지닌 청년(2023. 1. 1. 기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군산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시 소재 대학교 학생(휴학생 포함)이다. 모집인원은 총 15명이며, 활동기간은 오는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SNS시민소통 '소셜미디어기자' 모집

익산시가 시장과 시민을 연결하는 SNS소통 채널을 강화해 시민의 목소리에 보다 빠르고 민감하게 행정 대응성을 높여 나간다. 시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민의 관점에서 SNS로 다양한 시정 홍보 역할을 하는 2023 제8기 소셜미디어기자단을 모집한다.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1년간 시의 정책, 문화, 관광, 여행, 생활정보, 맛집 등을 생생한 현장취재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생산해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양한 콘텐츠를 위해 각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하며 일반 분야 20명, SNS 분야 6명, 영상 분야 4명 등 총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기자단으로 선정되면 취재활동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고,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 참여할 기회 등 다양한 활동 혜택이 제공되며 지역, 성별,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